대일경제
2014 .12. 16
국제갤러리(주)

"난 제주 덤불숲서 인생을 배웠다"

사실주의 중견작가 이광호
국제갤러리 '그림풍경' 展
제주 곶자왈 그린 21점 선보여
"복잡하게 얽힌 풍경 형상화"

덤불숲에 가 보면 안다. 인적이 드문 황폐한 곳에서는 이름 모를 풀과 나무들이 사정없이 뒤엉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잔설이 깔린 숲 속을 걷다 보면 그 복잡한 풍경이 사실은 내 마음속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사실주의 화가 이광호(47·이화여대 서양화과 교수) 역시 제주 곶자왈을 우연히 발견하곤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한다. 곶자왈은 외지인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곳이다. 곶은 숲을, 자왈은 수풀을 뜻한다. 원시적이고 사람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이곳에서 화가는 불현듯 도전의식을 느낀다. 이 복잡하게 엉킨 풍경을 화폭에 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린 것이다.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이광호 개인전 '그림풍경'은 곶자왈을 캔버스에 담았다. 작가는 "덤불숲에는 직선이 없다. 모든 게 서로 곡선으로 뒤엉켜 있다"며 "이 작고 사소한 것들도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에서 강한 생명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서로 뒤엉켜 한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에선 묘하게 에로틱한 느낌도 묻어난다.

인물과 선인장 등 정적인 것을 화폭에 담아냈던 작가에게 이번 풍경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작가는 "그 덤불숲 공간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이 많이 개입됐다"며 "숲 속 풍경은 내 마음의 풍경이기도 하다"고 했다.

신작 21점은 멀리서 보면 사실적으로 느껴지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구체적인 형상 없이 추상적으로 보인다. 작품과 관람객 거리에 따라 작품을 보는 맛이 다르다. 그는 처음엔 붓으로 묘사하다가 판화 작업에 쓰이는 도구 등으로 긁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이미 구획돼 있는 부분을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분적으로 헤매듯이, 더듬거리듯이 보게 되니 전체 이미지가 나오더라"면서 "그 과정에서 자연 변화를 관찰하는 재미도 있었다"고 했다. 전시에선 흰 눈과 녹색이 선명한 나무가 보이는 숲, 새벽녘 숲 등 작가가 그린 다양한 숲을 보여 주는 21점이 소개된다. 전시장 1층에서는 낮 풍경을 중심으로 한 웅장한 3패널 회화 작품을 비롯해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축축한 느낌의 덤불숲과 새벽녘 실 빛이 들어오는 자욱한 숲의 절경 등을, 2층에서는 밤 풍경을 담은 작품들을 볼 수 있다. 2층은 검은 벽면과 조명을 통해 실제 밤늦은 시간 숲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전시는 내년 1월 25일까지.

(02) 3210-9885

이향휘 기자